

사진 작업에 관한 나의 단상

이강소(Lee Kang-So)

세상은 모호하게 볼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고 어느 현자가 말했다. 이 추상적이고도 단순한 어구는 어리둥절하게 세상을 살며 예술작업을 하는 나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표현이다. 관념의 숲을 헤치고 맑은 세계를 체험하고자 하는 바람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영원한 염원의 하나일 것이다.

* * * *

12세 무렵 선물로 받은 카메라는 오랜 동안 내게 신비하고도 즐거운 체험을 하게 해 주었다. 파인더를 통해 보여 주는 세상, 인화를 거쳐 보여주는 사진의 이미지들은 나를 신기한 세계로 이끌었고, 마침내, 카메라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하나로 된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들이 요즈음 내 사진작업의 무리 없는 연속으로 이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내가 보고 있는 세계와 카메라 렌즈가 보는 그것이 다를 뿐 아니라, 인화된 영상과 세계와 나와 관계는, 또 다른 미로의 관계가 있다고 인식한 것이 최근 내 작업의 출발이니 말이다. 카메라 작업의 과정은 나의 감관을 통해서 보는 복잡다단한 세계와는 달리 또 다른 세계의 간결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다른 동식물이나 우리가 멋대로 규정지어 생각하는 무생물들이 세계를 인지하는 광경이나 구조는 어떠할까? 정말 이 세상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 * * *

어려서부터 칭찬 때문인지 좋아서인지 지금까지 줄곧 그림(Painting)을 그려 온 나는 수십년 이래로 나의 시선이 모호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작업을 해 오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거기(회화나 조각, 영상, 설치 혹은 행위작업 등)에는 어떠한 물질이나 행위보다 작용(Vital energy?, Ki-energy?)이 더 근원적이라는 생각의 작업들을 해 왔다고 하는 생각이다. 내가 사진작업을 수행하는 프로세스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세상을 렌즈라는 구조를 통해 망점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진이 나의 감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식의 과정 또한 "작용" 그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 * * *

근대 뉴턴역학의 훨씬 이전에 생명현상이 특별한 생명력에 의해 기인한다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Vitalism은 뉴턴의 근대를 뛰어 넘어 현대의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과 친분을 가질 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기(Ki-energy)사상과도 상통한다 하니, 이 또한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 * * *

세상 이곳저곳을 여행하다 보면,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는 불현듯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어

떤 강렬한, 그리고 기이한 분위기가 엄습하는 그러한 환경의 장이 있다. 어떤 미신이나 종교적인 나의 관념에서가 아니라, 그러한 곳은 누구에게나 비슷하게 느껴질 그러한 곳들이다. 전통이나 관습을 떠나서 이질적이면서도 기묘한 친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시공간들, 나에게 있어서는 전율의 마당이다. 이러한 곳에서 나는 곧잘 내 친구인 카메라를 이리저리 휘둘러 대 본다. 친구인 카메라는 어떻게 볼까? 사진은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 내가 보는 이미지와 비슷할까? 이미지일까, 빛일까? 공기일까? 사진의 망점일 뿐일까? 나에게는 모호함뿐이다. 아마도 카메라의 프로세스는 나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훨씬 담백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나비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 참새는? 달팽이는? 바위는? 세상은 불가사의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카메라를 좋은 친구, 좋은 대화자로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카메라는 끊임없이 자기가 보는 세계를 나에게 대화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어렵고도 친밀한 타자가 아닌가 한다.

2006.9.

이 강소